

보도시점 2023. 10. 6.(금) 배포 2023. 10. 6.(금)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폐막

- 尹 대통령, “750만 재외동포가 뭉 수 있는 운동장 넓힐 것”
- 63개국 350명 한인회장 참가,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및 지위향상 모색
-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등 8개 결의문 채택

1. ‘자랑스런 재외동포 든든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이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6일 막을 내렸다.
2. 10.5(목) 개최된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참석하였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동포 여러분의 초기 해외 진출은 고되고 미미하였지만,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으로 위대한 한국인의 이민사, 경제사를 써내려 오셨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 시작된 120년 이민의 역사는 그 동안 대한민국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큰 힘이 되었다”며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동포 여러분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필 것이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750만 동포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뭉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배효준(일본명 다케모토 다카토시) 아시아파운데이션 이사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 되는 등 재외동포 5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3. 이에 앞서 10.3-10.6간 개최된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첫날 운영위원회, 통일대북정책분야 사회적 대화를 시작으로 둘째날 산업시찰, 지역별 현안 토론,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기조강연 및 개회식, 셋째날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정우택 국회부의장 주최 오찬, 한인회 운영 사례 발표 및 정부와의 대화가 열렸으며, 대회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전체회의 및 폐회식 행사로 대미를 장식하였다.

- 4일 열린 산업시찰 프로그램으로 한인회장들은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현대 모터스 스튜디오, 기아 오토랜드를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였고,
- 같은 날 오후 열린 개회식 및 기조강연에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 알리기’는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주류 사회 진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재외동포정책 핵심목표임을 밝히며, 한인회장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였다.
- 대회 셋째날인 5일 열린 정우택 국회의장 주최 오찬에서 정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외동포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재외동포청이 설립되었다”며,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조국이 더 강해지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이어 개최된 ‘정부와의 대화’에서 재외동포청은 지난 9.13 재외동포청 출범 100일을 맞아 재외동포청의 성과와 계획을 발표한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을 소개하며,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서비스센터의 원스톱 민원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았으며,
 - 법무부, 병무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유관 기관에서도 참여하여 재외동포들이 궁금해 하는 국적, 출입국, 병무, 세무, 국민연금 관련 제도 및 민원 서비스에 대해 안내하였다.
- 한편, 올해 한인회 활동 사례 평가에서는 재튀르키예한인회총연합회의 ‘튀르키예 대지진피해 이재민을 위한 한국마을 건립 사업’이 이 청장으로부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4. 대회 마지막 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한인회장들은 대회토의 결과를 포함한 8개 항목의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그 내용은 ①윤석열 대통령의 재외동포청 설립 공약이행 적극 환영 ②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인류 공동번영 기여 ③재외동포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 제고를 위한 공동 노력 ④대한민국 발전상 알리기 공공외교 전개 ⑤재외선거 제도 보완 ⑥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적법 개정 ⑦2023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 ⑧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조속 건립 촉구 등 이다(전문 별첨).

- 아울러, 차기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으로 김점배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과 현광훈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장을 선정했다.

5.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환송사에서 “전 세계 한인회장을 만나 뵙고 직접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의미”라며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거듭 다짐한 후,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여 진심어린 격려를 해 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6. 전 세계 63개국 350명의 한인회장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동포사회를 대표해 참가한 한인회장들을 통해 우리 정부의 주요 재외동포 정책을 전달하고,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지위향상을 논의하며 모국과의 상생 발전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붙임 :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결의문. 끝.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총괄과	책임자	과장대행	문 경 남	032-585-3196
		담당자	서기관	이 희 경	032-585-3197
			사무관	박 한 울	032-585-3200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결의문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한 우리 한인회장 일동은
모국에 대한 애정과 의지를 담아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750만 재외동포의 오랜 숙원을 수용하여 재외동포청 설립 대선 공약을 이행해 주신 것을 적극 환영한다.
1. 우리는 재외동포청 출범을 계기로 재외동포와 모국의 공동 발전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한다.
1. 우리는 이번 대회에서 발표된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특히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이 재외동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하고,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청과 공동 노력한다.
1.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간 외교관으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역사·문화 등을 거주국 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한 공공외교를 적극 전개한다.
1. 우리는 거주국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한인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보다 많은 재외동포가 모국의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장소 확대 및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다.
1. 우리는 복수국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적법 개정 추진 등 재외동포 정책의 내실 있는 이행을 촉구한다.
1. 우리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지하고 대회 유치에 적극 협력한다.
1.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한다.

2023년 10월 6일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참가자 일동